

자주적립장은 통일문제해결의 근본립장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안팎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자면 자주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하여야 한다.

자주적립장은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우리 겨레가 견지해야 할 근본립장이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단보이다.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민족의 운명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할수 있다. 민족의 자주성에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있고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이 있으며 민족의 불굴의 기상이 있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지킬수 없고 나라와 민족의 변영도 이룩해나갈수 없다.

외세에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도로 찾는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것은 예측의 옳가미를 스스로 목에 끼는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짓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이 장장 70년이 되어오도록 실현되지 못하고있는것 자체가 외세의 끈질긴 간섭과 방해책동에 기인된다. 동서고급의 력사

는 나라와 민족이 외세의 힘을 빌어 자기 민족문제를 옳바로 해결한 실례를 알지 못한다. 오히려 외세에게는 다른 나라의 민족내부문제에 개입하여 저들의 리익을 실현하고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흉심이 있을뿐이다. 오늘 세계를 둘러보면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제국주의세력에게 놀리워 모든것을 양보한탓에 여러 나라들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리익이 무참히 유린당하는 처참한 사태가 빚어지고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실현하여야 할 민족자주위업이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실질적인 힘도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다. 그런것만큼 우리 민족은 자주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하자면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이 튼튼히 마련되어야 한다.

어떤 운동에서든지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야 승리할수 있다. 주체적력량이 준비되지 못하면 어떤 사회적운동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수 없다.

자주적운동개척의 힘은 민족의 단

결된 힘에 있다.

자주적립장은 우리 겨레로 하여금 조국통일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게 함으로써 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비상히 강화하게 한다.

현시기 날로 로골화되는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은 민족자주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한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써만 짓부셔버릴수 있다. 6.15공동선언이 밝힌 우리 민족끼리의 숭고한 리념밑에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 때만이 내외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갈수 있다.

온 겨레는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투철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대와 외세의존을 단호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민족의 존엄

과 자주권을 침해하고 통일을 방해하려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책동에 각성있게 대처해나가며 외세와 야합한 반통일세력들의 매국배족행위에 준엄한 철수를 가해야 한다.

나라의 통일을 민족의 근본요구와 리익, 지향에 맞게 해결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민족자체의 힘을 믿고 자주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하는데 있다.

조국통일의 리정표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도 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때 대한 민족자주의 리념, 민족대단결의 리념이다.

6.15공동선언발표후 온 삼천리강도를 격동과 환희로 끓여번지게 한 력사적사변과 성과들은 모두 민족자주적립장, 우리 민족끼리의 궤도에서 이루어진것이다.

력사와 현실은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데 통일위업실현의 길이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적대를 튼튼히 세워나감으로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기어이 열어나갈것이다.

림 소 영

은 훈장들과 메달들은 남녘의 혈육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남측 적십자사에서는 북남 흠어진 가족, 친척들을 위하여 연회를 차렸다.

북과 남의 흠어진 가족, 친척들은 작별하면서 하나의 강도에서 복락을 함께 누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조국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을 약속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의 지향에 부합되게 행동해야 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 담하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이 2월 24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지금이야말로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하여도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부합되게 심사숙고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남조선 국방부와 통일부관계자들은 《대북심리전》과 《북인권 강조》는 《비방증상과 별개》라는 주장을 들고나오면서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파시하였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3.1운동의 만세소리의 여운은 오늘도 남아있다.

8.15해방이 근 70년의 분렬로 이어진 아픔을 안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3.1의 정신이 주는 일깨움이 있다.

—미국을 믿지 말라— 《통상》을 한다며 중무장한 《서민》호를 끌고왔고 《타르트—가프라》 협정으로 일본의 《보호통치》를 인정한 미국, 일제를 원수로 만든 여기서 말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원수를 사랑하라》, 《일본인을 사랑하

회담락에 마주앉아 합의하고 발표한 공동보도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에 배치되게 행동하는것은 대화상대 대한 초보적인 레마저 저버린 배신행위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금강산에서 북과 남의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이루어지고있던 때에 미국은 남조선군을 부추겨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고 규탄하였다.

미국이 해마다 벌려놓는 전쟁연습으로 핵전쟁위험만 증대되고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는것은 우리 민족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정세를 계속 긴장시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깨뜨리지 말고 모든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속히 제소굴로 물러가야 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북침전쟁연습의 중단은 첨예한 긴장상태와 대결국면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이 옳바른 립장을 취해야 할것이라고 담화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얼마전 TV화면으로 전하는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소식은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역시 우리 겨레는 한피줄이구나,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뭉클했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렬과 전쟁으로 인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살다가 60여년만에 곁잡이 만난 가족상봉자들이다. 반세기기도 더 넘는 오랜 세월을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이 다른 북과 남에서 남남으로 갈라져 살아왔지만 그들은 만나자마자 부둥켜안고 인차 하나가 되었다.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살아온 지난날을 이야기해주며 혈육의 뜨거운 정을 나누었다.

금강산에서의 가족들의 만남은 혈육의 정은 세월의 흐름으로도, 리념과 제도의 차이로도 가를 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하기에 남녘의 언론들도 가족상봉을 보도하며 《오랜 시간 떨어져있었지만 피는 물보다 진했다.》고 전하였다.

리 경 순

《보안법》을 철폐할것을 요구

재미동포인 인터넷신문 《민족통신》에 의하면 남조선당국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재미동포들의 투쟁이 2월 21일과 22일 미국의 뉴욕, 로스앤젤레스, 워싱턴에서 각각 전개되었다.

시위와 집회들에서 참가자들은 불법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정치공작을 일삼는 정보

북에서 왔든, 남에서 왔든 피줄은 속일수 없는것처럼 반만년 오랜 력사속에 하나의 문화를 꽃피우며 살아온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둘이 아닌 하나이다.

이번 가족상봉이 보여주듯이 사상과 리념 우에 민족이 있으며 혈육의 정, 민족성은 가를래야 가를수 없고 북과 남은 하나로 합쳐져야 사는 유기체, 운명공동체이다.

근 70년 분렬의 고통을 겪었어도 우리 민족은 5천여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있는 단일민족이며 그 무엇으로도 겨레가 뿔뿔히 이어온 단일민족의 전통을 흐릴수 없다.

남이 아닌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은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

통일은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하나로 어울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민족의 밝은 미래이다.

이번 금강산에서의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지켜보면서 겨레는 화해와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줄 의지를 드높였다.

리 경 순

단상
우리 가족, 우리 민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